

교회 목록

신령한 예배
천국인간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성환 편집인:전홍용 편집:양재홍

오직 성경은혜
오직 믿음

오늘, 종교개혁주일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 중세 유럽은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혼돈 속에 대중들은 신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타락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원을 개인의 최선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순례, 구결, 성자와 성물 숭배와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습니다. 교회와 수도원은 한술 더 떠 성인의 뼈나 머리카락을 수집하여 진열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죄를 면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판매된 '면죄부' 증서는 타락의 극치였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가 면죄부와 교황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城) 내의 교회에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인간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벌이 교황의 면죄부를 사ando 하여 면제되는 않으며, 더 나아가 인간은 선행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이신칭의 [以信稱義: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요약됩니다.

지금 우리는 16세기 초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보다 더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라는 '면죄부'에 모든 종교인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보다 '어떻게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가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5).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 은혜, 믿음뿐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마 16:24).

11월

교회 일정

7일(주) 제7차 성찬식(1~5부예배)

17일(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21일(주) 추수감사주일 · 특별찬양(찬양예배)

*다중 주일(11월 7일), 2010년 제7차 성찬식(1~5부예배)

메시아의 족속 ⑤1

때와 잔에 관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막 14:34)라고 자신의 심경을 직접 밝히셨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마가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라"(막 14:33)라고 간접적인 설명을 하였다. 이후에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막 14:35~36). 마가는 자신의 해석이 포함된 간접적인 설명(막 14:35)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직접적인 기술(막 14:36)을 한 것이다. 이것은 간접적인 설명이 짧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많이 할애했던 마태, 누가와는 차이를 보인다(마 26:39; 눅 22:42).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보인 예수님의 행동과 기도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창조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미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다(마 8:31, 9:31, 10:33~34).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으며, 마가는 왜 그와 같은 모습을 간접·직접적으로 기술하였는가? 마가는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간절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예수님이 무

호했음에도 극심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와 고통의 잔은 바로 원죄로 인해 이미 죽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구속자의 간절한 기도인 것이다. 따라서 때와 잔에 관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죄인인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 깊은 가능성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그럼에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며 괴로워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연약한 모습 이면에는 영광의 승리가 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소리가 또 소리가 하시니"(요 12:27~28). 결국 때와 잔에 관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는 진실된 기도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드러낸 진실된 기도는 모세(출 32:10~11, 14), 히스기야왕(왕 20:1, 3, 5), 다윗(삼하 15:25~26)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모두 응답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마 18:11). 때와 잔에 관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죄의 깊은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치르신 것이다. "자비하신 예수여,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가게 하소서." 아멘.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PURPOSE OF COMMUNION

⁽²³⁾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²⁴⁾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³³⁾So then, my brethren, when you come together to eat, wait for one another. ⁽³⁴⁾If anyone is hungry, let him eat at home, so that you will not come together for judgment. The remaining matters I will arrange when I come.

(1 Corinthians 11:23~34)

Clearly the Lord's Supper was made by Jesus Christ Himself. The Son of God prepared this Holy Communion service to help believers stay focused and grounded in their faith. The words He gave us concerning this very special time are powerfully true,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Mk. 13:31). Many things in this world change or lose their meaning, but not God's word,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Is. 40:8). Jesus Christ's last meal was purposefully planned to be at the time of the Passover dinner. He told His disciples,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for I say to you, I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Lk. 22:15~16). At this much desired and spiritually significant Passover meal, Jesus changed its purpose. The Bible tells us, "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Lk. 22:19~20). Jesus changed the Passover Dinner into the Lord's Supper, commonly called Communion. What is the purpose of Communion?

The purpose of Communion is to remember the suffering and death of Jesus Christ. Today's Bible passage says,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1 Cor. 11:24~25). Jesus used the bread and cup to represent His body and blood, which is His suffering and death. The meaning of the cross comes to light. In their deliverance from Egypt, the Passover was instituted when God's people were instructed to eat an unblemished lamb and place its blood on the entrance way into their homes (Ex. 12:3~13). In so doing, the plague of death would pass over them. Jesus Christ is the Lamb of God. When John the Baptist saw Jesus, he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9). Revelation 5:11~13 says, "Then I looked, and I heard the voice of many angels around the throne and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and the number of them was myriads of myriads, and thousands of thousands, saying with a loud voice,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riches and wisdom and might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And every created thing which is in heaven and on the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on the sea, and all things in them, I heard

saying, 'To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be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Jesus died to forgive your sins and bring you eternal salvation. Please remember His death and suffering before you partake in Communion.

The purpose of Communion is to remember that Jesus Christ is coming back. Today's Bible passage say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 11:26). Remembering Christ's glory is exciting! At every Communion we should remember that His coming is closer and closer. 1 John 2:28 reminds us, "Now, little children, abid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we may have confidence and not shrink away from Him in shame at His coming." The Bible also tells us, "Be on guard, so that your hearts will not be weighted down with dissipation and drunkenness and the worries of life, and that day will not come on you suddenly like a trap; for it will come upon all those who dwell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But keep on the alert at all times, praying that you may have strength to escape all these things that are about to take place,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Lk. 21:34~36). Are you ready? Please remember Jesus' coming at every Communion.

The purpose of Communion is to examine your sinfulness. Today's Bible passage says,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 But if we judged ourselves rightly, we would not be judged. But when we are judged, we are disciplined by the Lord so that we will not be condemned along with the world" (1 Cor. 11:27~32). If you think you don't have sin in you, you are deceiving yourself and the truth is not in you. 1 John 1:9 reminds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The sinner who believes in Christ and confesses their sin is forgiven and made righteous,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Rom. 3:24). Please remember to acknowledge your wrongdoings and shortcomings, so that you can properly partake in Communion.

My dear friends, clearly look at Jesus' cross, clearly hope in His coming, and clearly check your heart before coming to Communion. 

성찬식의 목적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25)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라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26)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고린도전서 11:23~34)



김성판 목사

주의 만찬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 다. 신자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에 기초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성찬예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특별한 시간에 대해하신 말씀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막 13:31).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의미가 바뀌거나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사 40:8). 예수 그리스도님의 마지막 만찬은 의도적으로 유월절 저녁에 계획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눅 22:15~16). 소망이 가득하며 영적으로 중요한 유월절 식사 때에 예수님은 유월절의 목적을 바꾸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19~20).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지금 우리가 성찬식으로 부르는 주의 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라

성찬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고전 11:24~25).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데에 떡과 잔을 이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먹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 놓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출 12:3~13).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요한계시록 5:11~13은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안이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려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시어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념하라

성찬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흥분하게 됩니다. 성찬식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28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피고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 21:34~36).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다가?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를 살피라

성찬식의 목적은 여러분의 죄를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1:27~32).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며 천리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9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는 죄인은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 여러분이 지은 죄들과 언약함을 고백하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럼으로 여러분은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ㄴ

2010년 제3차 청지기훈련 **구속자의 기도**

2009년부터 시작된 청지기훈련의 기도시리즈.

그 마지막 주에 '구속자의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각인하여 주었다.

그 은혜를 심령에 가득 담고 나온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자.

•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하나님
의 자녀들(우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언제나
진행영(ing)임을 확신하며, 사랑의 주님 앞에 우
리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습관적이지 않은지 십자가
아래 통회하는 시간이었다. 김현경(교사, 초등2부)

• 어둡고 불안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중에서도 천
국은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하늘의 참 소망을 주
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서 정말 행복합니다. 김송희
(집사, 22교구)

• 청지기훈련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천국
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구속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님 부르시는 그 날,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토록 거닐길 소망합니다. 조영중(청년부)

• 사실 졸업전시 중이어서 친구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지만 그 친구들을 설득하
여 같이 청지기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어
서 예배시간 대부분을 영성적으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데도 말고 딱 한 가지
만 마음에 새기자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나의 영광을 내세우
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나보다
예수님 생각, 내 자랑보다는 예수님 자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김다은(대학부)

• 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바 되어 예수님한테 중보기도 받은 영혼이라는 것에 감
사하는 청지기훈련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게 해 주세요. 최용현(고등부)

•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자의 기도를 생각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
하길 소망합니다. 유종경(양수집사, 5교구)

• 시험기간 중에 맞이한 청지기훈련.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던 모습이 있었는데 예
수님께서 천국까지 이르도록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
니다. 본문 말씀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이 참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의 것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
다 청지기훈련을 통해 돌려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
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재현(대학부)

•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처음 접한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
랐다. 그저 '주님께서 기도하십시오'라는 느낌 뿐이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며 기쁜 일인지 깨달았다. 주님의 영광은 내 상식으로
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 그 자체였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는 그 기적을 보여 주신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기
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다 이루어졌다."
그 말씀 한 마디로 죄인인 나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는 최고의 기적을 받은 것이다.
고민우(고등부)

•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과 이 기도가 만민을 위한 기도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께 주신 자들,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영원한 영광에 이를 자들을 위한 기
도라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신다. 불확실한 세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확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예민(대학부)

• 영광의 주님과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의 사랑, 내 여
편 자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마 2:10).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디든 주와 함께 달리고 싶다. 주님께서 나와 완
전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
여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조송애
(집사, 17교구)

• 특히 찬양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찬양으로 내 심령을 감동시키신
후 말씀을 들으니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은옥(집사, 7교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24)**

• 청지기훈련이 있다고 들었을 때 '내가 지금 303인데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불러주셨고, '구속자의 기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다. 이렇게 벌써 같은 죄인을 이 자리까지 불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다. 목사님의 말씀과 연합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 모두가 좋았다.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며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나에게 오늘은 뜻 깊은 날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주님을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었던 오늘, 303이라는 핑계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청지기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던 오늘에 감사한다. **이소연(교동부)**

•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제일 먼저 마음에 와 닿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자기부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귀하게 주신, 저를 사랑해 주신 크시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현진(교동부)**

• 천국은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담א지는 청지기훈련이었다. 제3차 청지기훈련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주옥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찌도 위임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 닿는지, 이제껏 내 입과 내 뜻대로 살면서 내 원대로 안 되면 심이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나를 바꾸게 해 주시는 기도였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 주시는 은혜의 기도였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그 동안 내가 맞보았던 어떤 말씀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청지기훈련 때 받은 은혜가 내 영혼의 중심이 되길 기도한다.

최정미(집사, 여배다루)

• 말씀과 더불어 청지기훈련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은 모두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였습니다. 지휘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가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닌 목사님과 찬양대,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같이 부르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켜어질 세상 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말씀을 듣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먼저 찾고 항상 기도로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예림(교동부)**

• 주님을 영원이 찬양할 날을 소망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속자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천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장진영(집사, 17교구)**

•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다시 한 번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 감사. **최영숙(집사, 12교구)**

• 내가 살 속에서 격정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바라보시며 염려하는 것과 같으리라는 착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기도 앞에 나 자신이 심이 부끄러웠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내 속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과 계획하심이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정남(교사, 새가톨릭영육부)**

• 딸과 함께 청지기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다음 청지기훈련은 모든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명숙(집사, 11교구)**



선교는 생명

충현복지관 직원들로 구성된 선교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올해 3번째 해외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복지는 자선, 서비스, 봉사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것이다.

때문에 해외단기선교에서 그들의 장점이 심문 발휘돼 더욱 많은 열매를 맺었다.

♥ 저는 사회복지사 이전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장애인과 아이들, 순수한 영혼을 가진 분들을 사랑합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분들을 공율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조선영**

♥ 선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전하러 가는 것이니까요. 선한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희정**

♥ 선교간지 3일이 지나니 집에 두고 온 8개월 된 아기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우리 아이도 신앙의 분을 받아 나중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선교에 전념했어요. **박연식**

♥ 선교지에서는 복지관에서의 팀장과 팀원 등의 직급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하면서는 보지 못했던 직원들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했어요. 우리 충현복지관 식구들, 내년에는 전 직원이 같이 갑시다! **최윤미**

♥ 대박밖에 있을 때 복지관팀이 선교하는 것을 보면서 막연히 '나도 저 팀에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히 제가 그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 너무나 큰 영광이었어요. **장민준**

♥ 선교지에 부리고 온 복음의 씨앗은 저에게도 심겨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정작 죽어가는 영혼은 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윤근**

♥ 하나님께 지난날 제게 영이신 일들을 묵상하니 그 은혜가 실로 커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제 온가 가지 싶어요. 선교지의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한국에서 전도를 미루고 있던 저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꼭 같이 갈래요! **최민희**

♥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보석같이 빛나는 분들이었어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윤숙희 팀장**

팀원 중 한 사람은 선교지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던 불면증이 사라져 너무 달콤한 잠을 잤다고 고백했다. 7박 8일 동안 팀원들은 현지에서 완전히 적용되어 처음에 있었던 난관들은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었고, 서로를 돌아보며 더욱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돌아온 후에는 복지관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평소 서로 다른 팀에 속해 있어 소통의 기회가 없었으나 지금은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서로가 사랑스러워 보인다. 주번 동료들은 도대체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외야하며, 다음 해 선교에는 같이 가겠다고 하며



충현복지관팀

리 신청을 하고 나선다. 그 누가 말했던가. 영혼을 살리려고 떠난 선교지에서 자기 자신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그만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최혜 · 오남규 기자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1일(월) ~ 11월 9일(목)	24교구 4팀	이민숙
11월 3일(수) ~ 11월 11일(목)	1교구 2팀	이승득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27일(수) ~ 11월 4일(목)	23교구 3팀	박노익
10월 29일(금) ~ 11월 6일(토)	9교구 3팀	전성욱

내가 할 일은 기도

더운 날씨와 역한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찌푸려야 했고, 차량도 없고 나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또 다른 동역자를 보내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차량에는 에어컨이 나와 시원했고, 기사는 영어도 잘 하고 긍정적이며 활발하여 우리의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는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여 위험 지역을 피해 주었고, 소속된 차량회사와 지역주민들에게 박해를 받지도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이번 선교에서는 팀원들이 돌아가며 일일 팀장을 맡기로 했다. 팀장후원을 받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팀을 이끌어갈지 걱정이 많았으나 일일팀장 역할을 통해 더욱 주님께 묻고 의지하게 되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계기가 되었다.

이곳은 아직 많은 선교팀이 보내지지 않아 정보도 부족하고 불교국가에 무슬림도 많아 무턱대고 전할 수도 없는 위험한 곳이 많았다. 다른 종교인을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지역이었으나 주님께서 지켜주시던데 무사히 사역할 수 있었다. 불교, 힌두교 등 많은 종교인을 만났는데 그들은 종교관이 확고해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건 싫다"고 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지는 않다. 교회를 나가 본 적도 있다"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고 주님께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할 일은 기도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김민정(대학부)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심

한창 더운 시간에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갖는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우리를 보고 꺼려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이 우리의 사소한 친절과 섬김으로 마음이 열리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공생에 기간의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 전파하셨음을 상기케 되었습니다(막 10:45). 아직까지 복음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곳은 농촌 지역으로 예수님에 대해 생소해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 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상당 건물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수하고 부지런하며 한학일이 높아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 부흥케 되리라는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찬양의 힘은 암기에 한 각 복음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냉담하던 그들에게 찬양을 불러주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함께 박수 치며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운전기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의 고함 친척집으로 안내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사의 큰 아버지집에 들어서자 땀을 뺀 군복을 입은 사진에 훈장이 4개나 달려 있었고, 동네 곳곳에 공산당 깃발이 보여 조금은 두려웠지만 가족 모두가 기쁘게 복음을 받고 열정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은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심을 경험케 되었습니다(고전 3:7). 시간이 갈수록 팀이 하나가 되어갔고 더 큰 힘으로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였습니다. 매일 저녁 사역 평가회와 기도를 통해 외견이 교환되고 믿음과 기도로 점점 하나가 되어갔을 때 복음 전파도 더 잘 되었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 제자들이 하나될 것을, 사랑할 것을 줄곧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던 장면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케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조영진(전사, 2교구)





신성로마제국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루터

종교개혁주일이 뭐예요?



선생님,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종교개혁이란,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야. 지금은 성당과 교회가 둘 다 있지만,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의 교회라는 것이 없었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당 뿐이었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공동체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기 시작했어.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다고 있지?

네, 성경에서 읽었는데요, 교회는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만민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교회를 이끌어가던 교황과 신부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성경을 본래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지. 성경도 아무나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라는 당시 상류층만 사용할 수 있는 어려운 언어로 된 성경만 읽었다. 그래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말이지. 그리고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기만 해도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조상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해 준다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지.

아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일반 평민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그만큼 교회라는 것이 교황과 신부들에 의해 특별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거지.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대다수의 라틴어를 모르던 사람들은 예배시간에 무슨 말들이 오고가는지,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러한 가운데 '루터'라는 한 수도사이자 신학교수가 있었는데 이 분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95가지로 정리해서 비텐베르크의 교회 장문에 붙이면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어. 그런데 이 사건이 안 교회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유럽 곳곳으로 퍼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루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누구나 참여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루어진 예배,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지. 전에는 참석하지 못했던 성찬식도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허용되었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교회의 모습이 전에는 그렇지 못했구나 놀라워요.

우리가 성경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성찬식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이야. 어때?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에서 제56~91조

첫째 사람이 일을 하는 방법

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회개하며, 이 마음을 미루어 교회에서의 사제를 존경하며 교회 밖에서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않고 다만 사람에게 굴종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만한 것이 아니다.

둘째 사람이 할 일이란 하늘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인본주의 구원으로 상징되는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이지, 사회나 교회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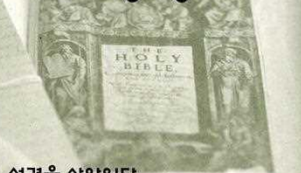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겠지요?

네, 전에는 너무 당연하게만 느껴져서 소중히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져요.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겠어요!

정리 · 박철호 기자

성경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나에게 말씀한다

성경은 빛이 있어 나를 향해 달아온다

성경은 손이 있어 나를 붙잡는다

성경은 옛것도 새것도 아니다

성경은 영원하다

-마틴 루터-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238	차민다	외신부	25	
1239	김병호	영아부	18	
1240	장윤서	영아부	21	
1241	김나현	영아부	1	
1242	함은우	영아부	6	
1243	송정민	사랑부	25	
1244	임나리	양육반	2	
1245	김수빈	초등2부	19	김영실
1246	이정로	양육반	3	
1247	김신화	양육반	2	한만교
1248	박은남		3	
1249	김신희	양육반	2	한만교
1250	이준영		3	
1251	신춘호	양육반	2	한만교
1252	이상복	통신반	22	성대열
1253	타나베나미코		16	이종윤
1254	남정민	통신반	18	문하숙
1255	임계숙	통신반	24	신정숙
1256	김지호	영아부	24	신정숙

10

일시: 11월 9일(화) 교회에서 10시 출발 장소: 충현기도원

1000

總 題

1. 김봉순 퇴교장(사회학 석도의 모친 - 김봉희 집사의 시모, 7교구 장미가리구) / 21일 밤세, 23일 장례
2. 김철중 집사(박순녀 석도의 이모 - 정희선 집사의 남편 - 김영준 - 김영희 석도의 부친, 2교구 국기2구역) / 24일 밤세, 26일 장례
3. 반용섭 석도(정종숙 집사의 모친 - 이정민 석도의 장모, 16교구 인현구역) / 25일 밤세, 27일 장례
4. 최말남 집사(이승이 권사의 시모, 2교구 개봉1구역) / 26일 밤세, 28일 장례

결혼

- | | | | |
|--|---|----|--------------------------|
| 1. 박상희(국·반유인 성도·서순자 성도
의 아들, 태교) / 남미영 양(이길주
집사의 딸, 9교구) / 11월 6일(토)
15:00 백제대학교의전당 2층 오너스룸 | 월 | 일 | |
| 2. 최은성(국·공복환 집사·지은자 집사
의 아들, 9교구)과 고영미 양(오지환
성도·이상분 성도의 딸, 태교) / 11
월 6일(토) 15:00 서운컨벤션센터홀 5
층 아이리스룸 | 7 | 11 | 김준성
박민준
장철환
김진성 |

주일 4시 기도회

일시:매주일 16:00

장 소 : 갈릴리움

대상:전교인 전도

선교언어 훈련

일시 : 매주 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40

504호(우크르)

충현기도원 촉탁직원 모집

- 1.모집부문 식당주방에서 일하실 분(여자 세례교인)
2.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3.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천호교회 사무국 ☎ 552-8200(408)

11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요예배 (장로)					헌양예배 평로 성가대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11	7	김종선	김종홍	지규성	김환기	이상석	배관용	정길래	이정연
	14	박덕양	이세영	박상대	최운득	원용철	김철남	권종술	김순자
	21	정철환	최제민	정정길	김정환	김홍기	허성진	최양술	임창준
	28	김신국	권사영	여복식	조충만	김태식	김지현	김기자	전명화

새벽기도회 (11/1~11/7)

	1(월)	2(화)	3(수)	4(목)	5(금)	6(토)	7(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고계승	강호성/문우식	김근영/최규옥	박용문/임병익	이재현/김광선	이순식/전은희	김근영/김정자
설교 본문	마태이서의 죽음	마 6:25-34	마 7:1-12	마 7:13-23	마 7:24-29	마 8:1-13	마 8:14-22

예배 달달 (11/3~11/7)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11/3	수요일 수요일	치료하시는 주님(요 14:1-6) 김성관 목사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눅 19:1-10) 이순식 목사	유재건 강영기	손은례 김동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설교로만 찬양대)
11/5	금요일	김성관 목사	양재용	예루살렘 찬양대 · 오케스트라 / 플루트 김유경 / 스프라노 윤지영	
	주일 I	성찬식의 목적(고전 11:23-34) 김윤광 목사	김백민	김중신	(예배 전 찬양)
	주일 II	성찬식의 목적(고전 11:23-34) 허종철 목사	최승준	김종홍	위대하신 주님과 / 플루트차복희(만남누에 오케스트라)
	주일 III	성찬식의 목적(고전 11:23-34) 김성관 목사	유재건	지규성	그 이는 날 밤 양치기 목자들아 / 스프라노 권성호(만남누에 찬양대)
	주일 IV	성찬식의 목적(고전 11:23-34) 이희식 목사	정민근	김상기	주일예 성찬 받기 위하여 / 첼로 이희영(만남누에 오케스트라)
	주일 V	성찬식의 목적(고전 11:23-34) 김성원 목사	박원준	이진석	예수 사랑하심을 의 / 벨로 아유정(만남누에 기도: 김정현)
	주일권양	버가모 교회(계 2:12-17) 김성관 목사	이순식	배관용	만남누에 찬양대 / 14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요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동포 등시복 예배)	본 당
	IV 오후 1:00(미국기 등시복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캘리포니아기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1 오전 11:00 2 저녁 7:00	본 당
새벽찬양집회	저녁 7:00	본 당
세백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최초집회	오전 11:00	①오전 9:40 분당 앞 출발 (9:50 분당교차로, 10:20 이암역 정류)
금요찬양	제석 10:30	금요일부고교 앞 출발(제석)

오전 11시에 도착하는 주일 부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전 1시에 도착하는 주일 부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및 수화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Beyer Old Road Worship Service. St. Paul's Lankian, Chinese, Mongolian, Russian, Cambodian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f O'odo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1 오전 9:00 11 오전 11:00	제1교과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과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과관 207호
초등 1부	오전 10:45	제1교과관 407호
초등 2부	오전 10:45	제1교과관 507호
중등 부	오전 10:30	감림리층
고등 부	오전 11:00	제2교과관 4층
대학 부	(30) 오후 2:30	제2교과관 4층
청년 1부	(35) 오후 5:30	제2교과관 4층
청년 2부	오전 12:15	제2교과관 2층

구분	시간	항 소
정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정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정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정전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소 방 부	오후 12:15	갈릴리 홀
사 랑 부	오후 11:00	북지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후 9:00(향년) 오후 9: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주)오전 8:30~12:00 (목)오전 10:30~2:00 (제)저녁 6:30~9:00	선교관 1층
가족양육부	오후 12:30	배 다 니 홀
북지교육관부	오후 11:00	아 램 홀
현역종도사서	오후 12:30 ~ 오후 4:30	제1교육관 7층
현역미리집	주2교육관	제2교육관 107호
제2교육관부	주2교육관	주2교육관

10월 총현 기도의 창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 21)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22) 교회에 동행한 새가족들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요 14:2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23) 위임받은 직무를 십자가의 복음(골 3:4-5)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간증을 주시라.
- 24) 십자가의 희로로 풍성한 심령한 때(골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골 3:12)한 아름다운 착의하게 하시며 때에 주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25) 개교와 20개 교회연합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교회(골 2:12)에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26) 1년 1월(1:1) 전신하여 회교구원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1:13)에 걸심전력하게 하소서.
- 27) 복음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의 단기전(골 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직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28) 충현의 재단(유지·중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영육, 할렘문화한글학교와 공사 중인 사관문(문경2가) 및 공존교 자연장터(금성1가) 이웃 사랑의 열매(문경2가)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illegible]